

## ‘소설 원효’ 출간한 한승원 씨

### “원효는 반전주의자”



“원효는 전쟁 통에 남의 과부를 겁탈하는 따위의 행동을 했을 리 없습니 다. 그는 반전주의자이자 불국토(佛國土)통일을 원했던 세계주의자였죠.” 장흥 출신 소설가 한승원(67)씨가 신작 장편소설 ‘소설 원효’(비제 펴냄·전 3권)에서 원효에 대해 내린 평가다. 한씨는 25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소설은 역사의 행간에서 원효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제까지 일연의 ‘삼국유사’ 등을 통해 알고 있던 원효와는 다른 모습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원효의 “자루빠진 도끼를 나에게 달라. 내가 자루가 되어 그 도끼로 하늘을 때칠 것”을 꾀했다. “당시 원효는 전쟁 중에 있는 신라를 피해 하늘이 무너 지려 한다고 말한 것이고, 전쟁 중단을 외치는 지성인이 없는 신라가 ‘진리’라는 자루가 빠져버린 도끼의 비유였다”고 말했다.

한승원씨는 “원효는 반전주의자”로 왕실 지배층과 연합해 전쟁을 옹호했다. 반면 대안, 혜공, 혜공, 원효 등 재야파들은 서민 사찰인 분황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쟁에 반대했다. 소설은 자신을 낳다 죽은 어머니, 자 신 때문에 꺾배를 꿰어 병치레를 하다 죽은 누이에 대한 부채감, 전쟁터에서 원효가 영축사 남지스님의 제자가 된 뒤 ‘어두운 세상의 새벽을 여는 사람’



### “호국불교와 무관... 재야파 가까워 이광수 소설 ‘원효’ 삼국유사 오독

한승원씨는 삼국전쟁이 한창이던 때 “중생을 도탄에 빠트리 는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 던 반전주의자이다.

신라 집권층에게는 원효의 이런 행동이 ‘논쟁가’였을 게 분명하다. 곧 집권층은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원효를 파렴치한 승려로 만들어 요석 궁에 연금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신라 불교계는 당나라 유학과 재야사님들로 나누어져 있었다.

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여동 생이 관상한 것으로 그려진 요석궁주 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도 소설 에서 중요한 이야기의 한 축을 이룬다. 한씨는 “원효는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대승적 삶을 살았다”면서 “어 려운 시대에 권력에 아부하거나 아첨 하지 않고 저항한 것이야말로 참다운 삶이며, 원효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 기 위해 이 소설을 썼다”고 말했다.

【경상필자 camus@kwangju.co.kr / 사진:비제 제공】

## 광주·상하이·싱가포르 아시아 3국

### ‘상생’ 비엔날레 손 잡았다

광주·상하이·싱가포르 등 아시아 3국이 ‘상생(相生)’ 비엔날레를 위해 손을 잡았다.

25일 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김홍희 광주비엔날레 전시총감독, 장칭 상하이 비엔날레 총감독, 기홍로 싱가포르 비엔날레 사무국장이 지난 24일 서울에서 3개 비엔날레 공동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 올 하반기 아시아에서 열리는 미술 관련 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9월8~11월11일)를 비롯 상하이 비엔날레(9월5~11월5일), 싱가포르 비엔날레(9월4~11월12일) 등 3개.

이번 공동 설명회는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비엔날레간 협력체제를 구축, 홍보를 같이하고 전시기획이나 구성내용도 상호 공유해 작품 작가가 중복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광주·상하이·싱가포르를 묶는 공동 여행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아시아 미술애호가들이 이들 비엔날레를 한꺼번에 둘러보고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홍희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은 “이제는 ‘광주’, ‘상하이’, ‘베니스’ 등 비엔날레 개최 도시의 특성이 강조되는 추세다”며 “아시아권 비엔날레가 공동보조를 맞춤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등 긍정적인 성과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비엔날레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회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만 비엔날레가 4군데나 열리는 데다 아시아권을 포함할 경우 무려 6개 대회가 한꺼번에 몰림에 따라 광주비엔날레의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것.

실제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부산비엔날레(9월16~11월25일), 대구 사진비엔날레(10월17~29일), 서울 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10월18~12월10일) 등은 사실상 광주비엔날레의 경쟁대상으로 넘어야할 산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의재 허백련 선생이 무등산 자락에서 평생 기거한 5만여평의 춘설차밭.

## 15 광주일보

제17432호 2006년 4월 26일 수요일

## 금매화·초롱꽃·평의다리...

한국야생화展 28일부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제4회 한국야생화전이 한국야생화연구회(회장 최기주) 주최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꽃을 사랑하는 야생화연구회원 25명이 야생화 관련 작품 500여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부 지방 야생화는 물론 강원도, 백두산 등 한강 이북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 들꽃과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야생화들이 선보인다.

백두산 천지와 산자락에서 자라는 두메양귀비, 금매화, 바이칼 평의다리, 초롱꽃 등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워 희귀종이나 다름없는 야생화이다.

아직 화명을 얻지 못한 ‘산철쭉’과 배양을 거쳐 새모습을 드러낸 야생화 150점도 눈길을 끈다. 섬에서 자라는 윤판나물아재비는 자연 변이종으로 이번에 첫선을 보인다.

섬에서 자라는 새끼노루귀, 노랑땅나리를 비롯 고산지대에 분포한 털복주머니난초, 동강할미꽃, 처녀지방 등도 전시된다.



‘초롱꽃’

이런 전시에서는 남부 지방 야생화는 물론 강원도, 백두산 등 한강 이북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 들꽃과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야생화들이 선보인다.

백두산 천지와 산자락에서 자라는 두메양귀비, 금매화, 바이칼 평의다리, 초롱꽃 등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워 희귀종이나 다름없는 야생화이다.

아직 화명을 얻지 못한 ‘산철쭉’과 배양을 거쳐 새모습을 드러낸 야생화 150점도 눈길을 끈다. 섬에서 자라는 윤판나물아재비는 자연 변이종으로 이번에 첫선을 보인다.

섬에서 자라는 새끼노루귀, 노랑땅나리를 비롯 고산지대에 분포한 털복주머니난초, 동강할미꽃, 처녀지방 등도 전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꽃과 나무 그리고 바람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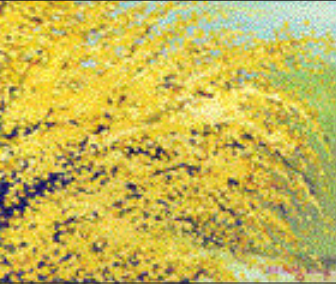
김상선 개인전 30일까지 여수진남문예회관

중견 서양화가 김상선 씨가 오는 30일까지 여수 진남문예회관 전시실에서 5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김씨는 ‘바람소리’라는 주제로 꽃과 나무, 바람을 화폭에 담은 근작 50여점을 선보인다.

그는 개나리, 수양버들, 단풍 등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들을 풍부한 색감으로 형상화, 자연의 오묘한 변화를 담았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한 뒤 여수 한영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여수미술 서양화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나리’

중견 서양화가 김상선 씨가 오는 30일까지 여수 진남문예회관 전시실에서 5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김씨는 ‘바람소리’라는 주제로 꽃과 나무, 바람을 화폭에 담은 근작 50여점을 선보인다.

그는 개나리, 수양버들, 단풍 등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들을 풍부한 색감으로 형상화, 자연의 오묘한 변화를 담았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한 뒤 여수 한영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여수미술 서양화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국악과 재즈가 만나면

광주국악관현악단 27일 연주회...한영애씨 등 노래



〈이태백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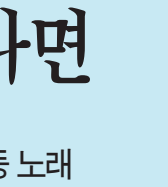
국악 반주에 맞춰 독특한 한영애의 음색으로 듣는 ‘누구없소’는 어떤 기분일까.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이태백)이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제 38회 정기연주회는 현대음악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시도가 즐거운 공연이다.

첫 무대를 여는 작품은 ‘광주서곡’ 광

주 출신 국악 작곡가 백대웅씨에게 위촉 의뢰, 이번에 초연되는 ‘광주 서곡’은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광주의 이미지를 그린 작품이다.

이어 창과 관현악이 어우러진 ‘빛고을 비나리’가 이어진다.

또 김일규 선생이 ‘김일규류 아쟁 산조를 위한 관현악’을 협연하며 무용가 염현



〈한영애씨〉

주·조재혁씨는 박범훈 곡 ‘춘무(春舞)’에 맞춰 한국무용을 선사한다.

그밖에 안숙선씨에게 판소리를 배우기도 한 가수 한영애 씨는 ‘누구없소’ ‘조율’을 들려주며 박수열씨 등은 스윙 재즈 곡인 ‘sing sing sing’을 국악관현악곡으로 편곡한 음악에 맞춰 멋진 춤을 선보인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춘설차 국제학술대회

29일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의재미술관과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차(茶) 문화와 광주의 춘설차’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3국 차 문화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이 행사는 지난해 가을에 열린 ‘글로벌 시대의 아시아 문화지도 만들기’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1부 행사에서는 3국 참가자들이 ‘한국 차문화와 콘텐츠화’, ‘춘설차의 글로벌

마케팅과 디지털 콘텐츠’, ‘중국 다도의 인문학적 의미’,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도의 문화사적 의미를 찾아서’를 주제로 각각 논문을 발표한다.

이어 중국과 일본의 전문 다예사가 현지 특산차와 전통기법을 현장에서 재현, 참석자들과 함께 동아시아 3국의 차문화를 비교·공유하는 기회를 갖는다.

춘설차는 무등산 산자락에서 나오는 광주의 명차로,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선생이 이곳에 사저인 춘설헌(春雪軒)을 세운 뒤 직접 5만 여평의 다원을 운영, 보급에 앞장섰던 전통차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탄폴 망수전문!**  
지붕 망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주)태양주막개발 | TEL: 0621 262-9606 / 262-8458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업/양도/임수

青碩 C&S | TEL: 06512-0247-0 / FAX: 06512-1067

**방수**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특수방수재 | 드림공리아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TV방송 출연 교수진!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5월 1일 | 361-8111